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 50장 14-21절

Tag:

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 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50:14-21)

야곱에게는 아들이 열 둘이나 있었고, 딸도 있었다. 딸이 여럿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성경에서는 디나만 언급되어 있다.

야곱 가정의 불행은 라헬로부터 촉발된다. 라헬은 예뻐지만 질투심이 강했고, 언니와 경쟁하려고 했다. 두 자매는 원수처럼 지냈다.

이렇게 틀이 형성된 데에는 장인어른 라반의 욕심과 계략 때문이었다. 길 핑계는 큰딸보다 작은 딸이 먼저 결혼하면 앓된다는 것이었지

만, 내심 일 잘하는 야곱의 노동력에 대한 욕심이 화근이었다.

창세기에는 유독 거짓말과 속임수가 많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한다. 가장 치사한 사람, 속임수의 달인은 라반이다.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야곱은 자기보다 열배나 더 치사하고 속임수의 달인인 라반을 만난다. 예나 지금이나 사정이 있어서 고향이나 부모의 슬하를 떠난 나그네는 고달프다. 나그네는 약자이며, 큰 돈벌이가 하늘에 별 따기다. 힘겨운 일을 하지만 큰돈이 벌리지 않는다.

야곱은 타향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생이 심해서 그저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였다. 그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였다. 라반의 아들들보다도 몇 곱절.

라반으로서는 굴러온 호박이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라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간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야곱으로서 이 14년은 자신의 젊음을 모조리 바친 기간이었다. 그 세월동안 사랑도 하고 싸움도 하고 지지고 복는 삶을 보낸다. 레아와 라헬은 원수처럼 싸우고, 애들도 바글 바글 태어났다. (치정을 오히려 번식으로 이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는 와중에 야곱의 목양 기술은 점점 더 기묘해졌다. 심지어는 꿈속에 어떻게 하면 새끼를 배게 하는지에 대한 계시까지 받는 경지에 이른다. 14년이 지나자 라반은 임금협상을 하게 되고, 장인 영감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야곱은 자신의 목양 비법을 숨기고 장인을 위하는 척 하고 불리한 계약을 제안한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당대의 최고 속임수였다. 그는 야곱을 믿지 않고 얼룩이와 점박이를 따로 분리하고 요셉에게는 흰양만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어 주셨다. 흰 양이지만 유전학적으로 얼룩무늬와 점박이 유전인자가 숨겨진 양들만 교미하게 하셨다. 처음에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얼룩무늬 나뭇가지와 튼튼한 놈들만 이용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야곱의 편을 들어 주셨다. 그 후 라반은 열 번도 넘게 임금협상을 반복하지만, 매번 하나님은 야곱 편을 들어 주었다. 나중에 야곱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

사람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를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악이 성하다는 것은 악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이고, 악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도 깊어가면서 죽게 되듯이, 악은 약해질수록 약해져간다. 그러다 다급하니까 극약 처방을 하게 되고, 결국 극약이기 때문에 약한 악이 먼저 죽게 되는 이치다.

그래서 악이 성할 때는 우리는 더욱 선해져야 한다. 그래야 악도 이기고,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온갖 풍상으로 가득한 야곱 가정에 진주 같은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어머니는 질투장이 라헬이라. 하나님의 유전 비법은 가히 놀랄 만하다. 요셉은 환상과 꿈에 능했고, 어려서부터 정의롭고 사리분별이 정확하였다. 여러 형들과 형제들 사이에서 경찰관 노릇을 단단히 하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듬뿍 받았다.

풍상과 질투와 패싸움 문화가 가득한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버리는 것이 앞던 이를 빼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급기야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게 된다. 요셉을 금이야 옥이야 총애하던 야곱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고, 생애 처음으로 거대한 죄악 세상과 대면하게 된 요셉으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고난의 행군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

당하는 일마다 억울한 일만 당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꿈으로 환상으로 요셉을 위로 하였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셨다. 또한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고,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고, 요셉이 담당하기만 하면 일들은 일사천리가 되어 성사 되었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나 결국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 애굽의 국무총리

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주신 예언적 꿈대로 7년 대기근이 시작되고 그 기근을 계기로 요셉은 다시금 형들과 마주하게 된다. 형들과 마주하게 된 요셉에게는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이다. 4명의 어머니들, 어떻게 보면 2과 갈등, 어떻게 보면 4과 갈등의 꼬이고 꼬인 관계와 갈등들, 제일 나이가 적은 요셉과 베냐민은 날마다 형들에게 이리 저리 치이고 빼앗기고, 보복 당하였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요셉은 또 동생 베냐민까지 지켜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었고, 한두번은 아빠를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르우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의 엄마 라헬의 시녀이자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아버지의 신임을 잃게 된다. 오래 전 둘째 셋째 형들은 강도살인죄로 이미 아버지의 신임을 잃은 상태였다.

요셉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자 야곱의 마음은 더욱 요셉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를 장자로 삼게 된다. 형들은 이런 아버지의 처사에 몹시 불쾌하였고 요셉의 잦은 고자질로 인해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결국 이 갈등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김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결코 씻을 수 없는 공범 연대감이 만들어졌다.(베냐민 제외)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온통 슬픔과 죄의식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에게서 발견되는 정황은 회개와 후회와 책임감과 심판의식이라는 것이다.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요셉의 형들은 날마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야곱은 자신의 울부짖음 때문에 자식들이 날마다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처절하게 울부짖어댔다. 야곱에게도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었을 것이다. 아들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했다는 심증!

이때쯤, 나이 먹은 아들들도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고, 그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다. 철들고 나니 자존심, 시기심, 질투심, 적개심, 보복감정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거리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요셉에게 쏟았던 감정들이 베냐민에게 쏟아지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도 이제는 아버지가 밉지 않고, 저가 막내를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안쓰럽기까지 한다.

더구나 유다는 자기 가족의 치정사 때문에 더욱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속임수, 욕심, 치정, 복수, 칼부림, 시기, 질투, 경쟁, 고자질, 공동범죄, 인신매매 등을 통해서 결국 야곱의 가정을 지배하게 된 것은 슬픔, 회개, 심판에 대한 두려움, 희생양, 죄책감,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책임감 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지혜가 넘치시는 분. 이 모든 흑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세상은 여전히 싱싱하고 건강하고 복되고 찬란하게 변해간다. 마귀는 모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파괴하고 저주 가운데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 살아남게 하시고, 환상과 꿈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신다.

요셉도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만감이 교차되고 어떻게든 이들을 골탕먹일 것을 궁리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나 요셉도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형들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히 형들을 용서하게 된다. 용서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윤리도 아니고 법률용어도 아니다. 용서를 윤리로 착각할 때 용서는 오히려 칼이 되고 정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용서가 법률적으로 사용될 때, 그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감성팔이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킨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적 치유이다. 말로만 하는 회개나 용서로는 영혼을 치유하거나 구원하지 못한다. 그저 자존심을 회복하거나 재산을 회복하거나, 관계를 회복할 뿐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용서만 영혼의 치유와 구원이 일어난다.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 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회개할 것이 있는가? 용서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울부짖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치유받는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